

2003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 축하 메시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부산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신 선수단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대회 관계자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태풍으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속히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부산은 37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어 월드컵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의 질서정연한 시민의식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부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산은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허브 도시로서, 나아가 국제 문화와 스포츠의 중심도시로서 그 명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살아 있는 부산에서 지난해의 성공을 기념하는 국제육상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최선을 다하는 23개국 선수 여러분의 선전에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3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의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부산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